

항몽유적에서 보내는 5월의 편지

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의 5월은 팽나무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합니다.
오랜만에 졸업앨범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면서 한 장씩 넘겼습니다.
언니의 졸업앨범에서 항몽순의비 앞에서 찍은 단체사진을 발견했습니다.
어찌나 기쁘던지요,
여러분들도 항몽순의비 앞에서 단체사진 찍었던 기억이 다들 있으시겠죠,
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던데... 그 말이 맞나 봅니다, ㅎㅎㅎㅎ
그때 유년시절의 당신을 만나러 오시지 않겠습니까?
항몽순의비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,
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
가족과 함께 항파두리 항몽유적에 나들이 오시기 바랍니다,

